

“생계와 가정 안정에 보탬이”

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별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만1,915명 정도

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지급수단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된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처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와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2023년 국가예산 ·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 신규 102건 한국판 뉴딜사업 46건 등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 견인 위해

군산시는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2023년 국가예산 및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컨설팅과 전직원 아이디어 회의를 3일간 실시했다.

또한 국가예산 32건, 1조 2,415억원과 신규시책 70건, 279억원 등 총 1조 2,69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규사업

으로 확정하고, 2022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는 총 32건(경제분야 11건, 문화분야 5건, 복지분야 3건, 건설분야 2건, 농업분야 6건)에 총사업비 1조 2,415억원 규모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보안신평성 기반 조성사업(440억),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3,747억),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80억),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60억), 군산 문화도시 공모사업(200억), 해양문화재 관련 국가기관 유치(600억),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200억), 군봉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34억) 등이 발굴됐다.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70건(279억원 규모)의 신규시책도 함께 발굴해 검토가 이뤄졌다.

주목할 만한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할인, 우리동네 나눔공유마켓 지원, 도심빈집뱅크, 배달의 명수를 통한 시민광장 플랫폼 활성화,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은파호수공원 지중화사업,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지원사업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사업 등을 남달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사회복지협,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유공자 표창 수여

군산시는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용승)가 보훈회관 강당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를 개최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회복지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기념식만 실시했다.

홍용승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

사자분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과 봉사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9월 1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복권기금이 후원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하는 ‘2021년 생활과학교실 3기’를 운영한다.

‘2021년 생활과학교실 3기’ 운영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창의·나눔과학교실 진행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9월 1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복권기금이 후원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하는 ‘2021년 생활과학교실 3기’를 운영한다.

2021년 생활과학교실 3기는 지자체별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등 42개소에서 주 1회, 개소 당 10회, 총 420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나비의 한 살이 ▲색 리집 지킴이 ▲물구슬 액체 물탑 ▲나만의 화석 ▲나만의 캐릭터 책갈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은

네이버카페, 서천군은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권기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은 강사비가 전액 무료이고, 학생은 재료비만 부담하고 있다.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재료비 또한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063-466-2154)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과학교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 미성동 SGC에너지, 백미 200포대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백미 200포대를 기부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 미성동은 SGC에너지가 백미 200포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소룡동, 미성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

SGC에너지는 매해 명절마다 ‘사랑의 쌀’ 행사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준영 SGC에너지대표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GC에너지는 매년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과 김장김치 나눔행사, 취약계층의 명절맞이를 위한 백미 나눔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녹색도시 건설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숲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정주여건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생활권 숲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46억8000만원을 활용해 도시숲 3개소, 가로수 및 명품가로수길 3개소, 학교숲 5개소, 자연안심 그린숲 2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2개소 등을 조성했다. 도시숲은 모란동, 부송동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과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도심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뉴시스

원광대, WK-튜터링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장학금 지급

원광대학교는 WK-튜터링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원광대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49명에게 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WK-튜터링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학습을 통한 능동적인 태도와 팀워크 협업 능력을 배양하고 성적 향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개됐다.

특히 성적 부진 학습자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하고 대 학생할 적응력 향상과 전공탐구,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조영식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자들의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이 제한 받고 있어 실시간 화상 강의방식으로 학생들의 스터디를 지원했다”며 “온라인 스터디로 학습자 간 소속감 증진과 튜터-튜티 관계형성을 통해 상호간 win-win하는 온라인 스터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